



지금, KOSDAQ 낙폭과대주를 사야하나요?

1) KOSDAQ 60일 이격도 90, 2012년 이후 5번째

- 최근 1개월 KOSPI 낙폭은 제한된 반면, KOSDAQ 지수는 급락
- 11/2일 KOSDAQ 지수의 60일 이평 이격도는 90을 기록. 2012년 이후 5번째
- KOSDAQ 지수의 단기 반등 여부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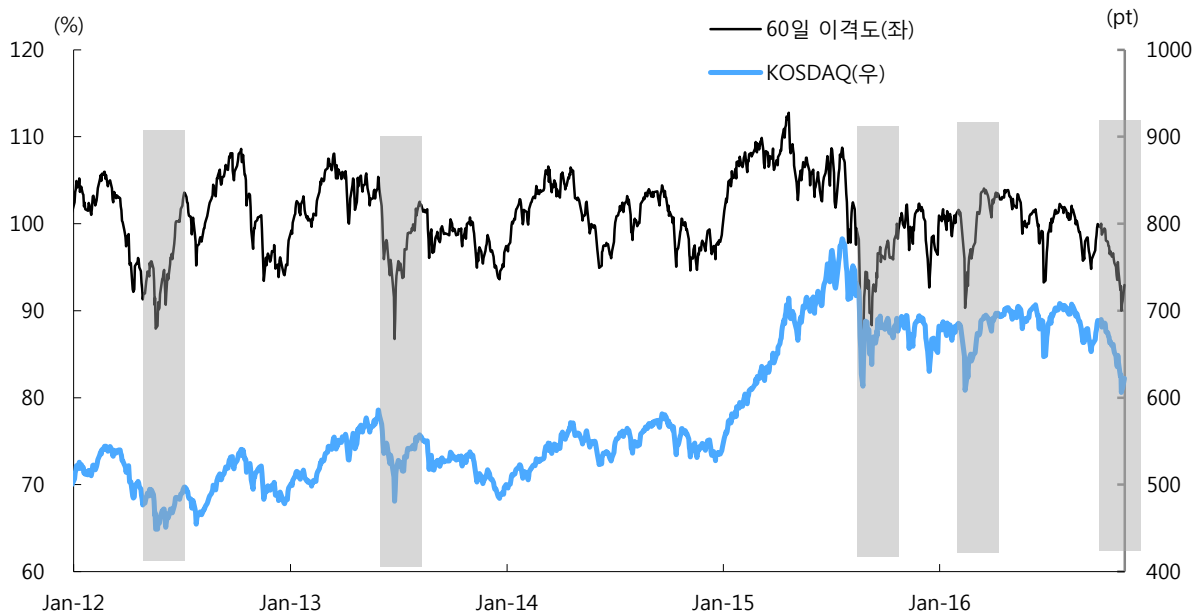
2) 해당 국면 KOSDAQ 낙폭과대주의 수익률, 높지 않다

- 지난 4번의 KOSDAQ 지수 급락 국면에서 KOSDAQ 지수는 이후 1개월간 반등에 성공. 다만,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함
- KOSDAQ의 단기 반등은 가능한 상황이나, 단기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
- 특히, KOSDAQ 지수 내 낙폭과대주의 성과는 KOSDAQ 지수 대비 소폭 outperform에 그침
- KOSPI 낙폭과대 국면에서 대형주의 낙폭과대주 수익률과는 차별화되는 모습

3) Valuation gap 축소는 정상화의 과정,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 작년 하반기 이후 신흥국 상대 강세로 신흥국과 선진국의 Valuation gap이 축소되는 과정
- 이는 Valuation 메리트가 높은 한국 증시에 유리한 환경
- 국내증시 내에서는 2015년 상반기 KOSDAQ의 급등에 따라 KOSPI와 KOSDAQ의 Valuation gap이 크게 확대된 상황
- 이후 KOSPI 지수의 상대 강세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이해
- 증시 관심이 Valuation으로 이전되며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Valuation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

1. KOSDAQ 60일 이격도 90, 2012년 이후 5번째



자료: 유안타증권 HTS

- ▶ 최근 1개월 동안, KOSPI 지수의 낙폭은 제한된 반면, KOSDAQ 지수는 급락
- ▶ 특히, 11/2일 KOSDAQ 지수의 60일 이평 이격도는 90 수준으로 하락. 이는 2012년 이후 5번째
- ▶ 최근 수일간 KOSDAQ 지수가 상승하며, KOSDAQ 지수의 반등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말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국내증시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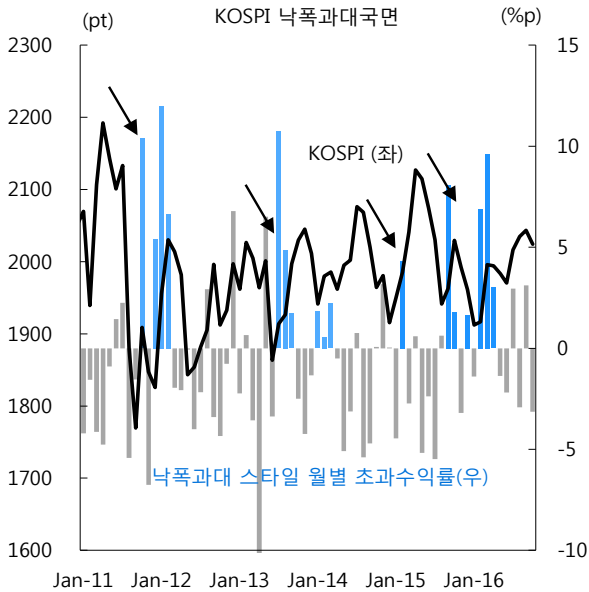
특히, 말이 많고 말에 취약한 KOSDAQ 지수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KOSDAQ 지수의 60일 이평 이격도는 90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다섯번 밖에 보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던 KOSPI 지수보다는 KOSDAQ 지수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몇 일간 KOSDAQ 지수가 반등하며, KOSDAQ 지수의 반등 지속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KOSDAQ 지수가 이례적으로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2. 해당 국면 KOSDAQ 낙폭과대주의 수익률, 높지 않다

2012년 이후 KOSDAQ 이격도 90 기록 시점					
일시	KOSPI		KOSDAQ		낙폭과대 20종목
	이전 1개월	이후 1개월	이전 1개월	이후 1개월	
2012.05.18	-11.1	+6.1	-10.9	+5.9	+3.9
2013.06.25	-9.8	+7.2	-16.2	+12.7	+15.9
2015.08.20	-7.7	+4.3	-16.1	+5.1	+6.4
2016.02.12	-2.9	+7.4	-9.4	+13.3	+16.9
2016.11.02	-3.2		-11.0		



주: KOSDAQ 내 시총 상위 200 종목 기준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주: 연도별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기준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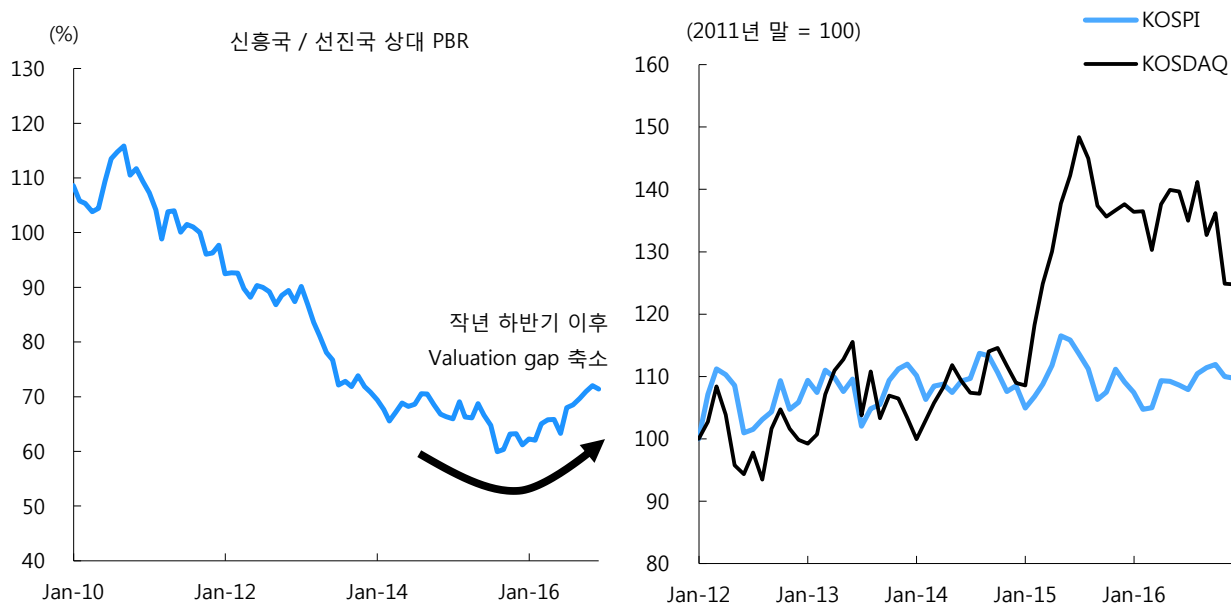
- ▶ 지난 4번의 KOSDAQ 지수 급락 국면에서 KOSDAQ 지수는 이후 1개월 간 반등에 성공. 다만,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함
- ▶ 특히, KOSDAQ 지수 내 낙폭과대주의 성과는 KOSDAQ 지수 대비 소폭 outperform 에 그침.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 KOSPI 낙폭 과대국면에서 시총상위주 내 낙폭과대주의 수익률과는 차별화

이례적인 급락 이후 지수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전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낙폭과대주는 증시 낙폭이 큰 시기, 단기로 대응할 경우 outperform 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KOSDAQ 에서는 통하지 않는 듯 합니다. 지난 4차례의 급락 국면에서 KOSDAQ 낙폭과대주는 KOSDAQ 지수 대비 큰 폭의 outperform 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KOSDAQ 지수의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의 선택이 꼭 낙폭과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3. Valuation gap 축소는 정상화의 과정,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주: 신흥, 선진국 Valuation 은 MSCI Index 기준, 자료: Datastream, 유안타증권

- ▶ 작년 하반기 이후 신흥국 상대 강세. 신흥국, 선진국 간의 Valuation gap 축소
- ▶ 증시 관심이 Valuation 으로 이전되며 Valuation 메리트가 높은 한국 증시에 유리한 환경 제공
- ▶ 최근 KOSPI 지수의 상대 강세는 2015년 상반기 크게 벌어졌던 KOSPI 와 KOSDAQ 사이의 Valuation gap 이 축소되는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

결국, 종목에 대한 선택은 fundamental 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KOSDAQ 의 종목은 이슈나 테마에 의한 등락이 자주 발견 되기 때문에, fundamental 이 취약한 종목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하락한 경우, 주가의 방향성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을 들어 글로벌 증시의 관심은 Valuation 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벌어졌던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Valuation gap 축소는 이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한국증시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작년 상반기 KOSDAQ 의 급등은 KOSPI 와 KOSDAQ 의 Valuation gap 을 크게 확대 시켰고, 하반기 이후의 KOSPI 상대 강세는 이에 대한 정상화의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KOSPI 의 Valuation 메리트가 높습니다.